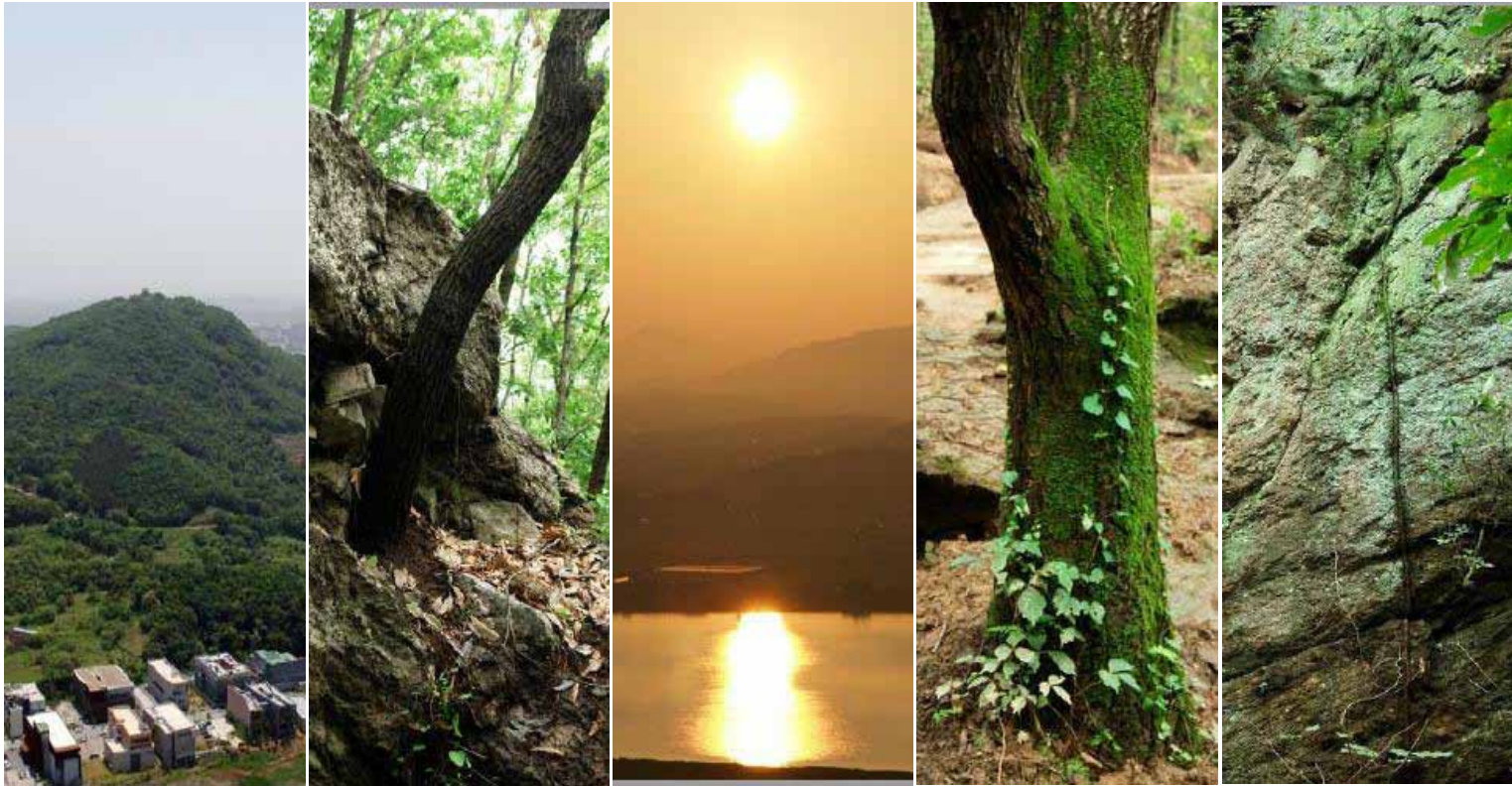


PI PHOTO STORY

파주 심학산 이야기



심학산 이야기



한강에 섬처럼 떠있어 수막산이라 불렀다가 조선 숙종때 궁중에서 기르던 학이 이산으로 도망왔던 것을 찾았다고하여 심학산이라 한다

심학산 이야기



이른 아침 평상에 쏟아지는 햇
별은 일상을 잊고 자연에 묻혀
있기 충분하다



신록이 한창인 심학산에 바위
와 담쟁이와의 공생은 싱그럽기
만 하다



수투바위에서 만들어낸 시원한
바람은 한 낮의 여름을 상쾌하
게 만들어준다

심학산 이야기



바위의 거친 영토에서도 참나무의
힘찬 기세는 하늘을 찌르고 있다

심학산 이야기



한 여름에도 나무 그늘로만 흙
길을 걸을 수 있어 사람이 끊이
지 않는다



이끼를 머금은 참나무가 담쟁이
와도 이웃으로 살아 가고 있다



푸르름을 지켜가는 육형제 참나무들이 심학산을 지킨다



수천년을 묵은 바위가 여름을
살기 위해 카멜레온 바위로 변
신한다



바위 한 가운데로 자라는 강쇠
나무의 생명력에 자연의 위대함
을 배운다

심학산 이야기



자연은 모두와 어울린다. 소나무와 참나무, 풀, 햇볕, 바람 그리고 청솔모도 함께 한다

심학산 이야기



신록을 푸르게 하는 옹달샘은
자신을 먼저 내어 주는 것으로
대지로부터 사랑을 얻는다

심학산 이야기



빈 의자도 신록과 푸르름이 채
색되는 세상의 이야기를 나눈다



산을 오르거나 내릴때 한 걸음
씩 옮기는 세상의 원리를 배운
다

심학산 이야기



궁궐로 돌아간 학은 솔향기 가득한 심학산의 꿈을 잊지 않을 것이다



일상을 버리고 강바람과 햇볕을
벗삼아 자연인이 되어 본다

심학산 이야기



하늘과 계단, 그리고 정자가 어
울어진 하나의 풍경화를 본다

심학산 이야기



한강의 운무는 흐릿한 기억을
신록에 묻게 한다

심학산 이야기



심학산은 도시의 복잡함을 잊은
채로 세상의 여유를 느끼게 한
다



친구와 뛰놀던 초등학교 운동장
의 한 낮의 정경이 그림다

심학산 이야기



약천사의 풍경소리가 교하 신도
시의 생명력을 불어 넣는다



한 낮의 뜨거움을 품었어도 연
꽃의 수줍음은 오히려 순수하다



무수히 지났던 수 많은 발걸음
도 지금은 어디에도 없어라



궁궐을 떠나 중생에게 자비를
베풀던 석가의 미소가 그림다



쏟아지는 심학산의 햇볕을 담아
가을을 영글게 한다

심학산 이야기



오솔길을 조금만 걸어도 진한
솔향이 우리를 반긴다



꽃 하나가 또 다른 꽃과 이웃
되면서 저절로 아름다운 세상
이 된다



소나무야, 네가 서있는 곳이 어
디라도 고고하다



이제 뜨거웠던 하늘도 한강과
함께 바다로의 여행을 시작한다



태양이 강과 한 몸이 되려 손을
길게 내민다



밤새 책 이야기하던 가로등이
이제 잠자기 위해 준비한다



교하 신도시의 현란한 밤이 하
룻밤의 이야기를 길게 쓰려한다



밤을 지키는 수호자들의 불빛
이 한강의 밤을 더욱 아름답게
한다



자유로의 길게 이어진 자동차의
불빛 마저도 심학산의 아름다운
야경이 된다

에필로그

조선 숙종때 궁궐에서 기르던 학 두마리가 이산으로 도망나와 있다가 찾았다고 해서 심학산이라는 불리게 되었다고 한다.

옛날에도 사람이나 동물도 일정한 틀에 갇혀 있는 것을 싫어 하는것 같다.

궁궐에서 최고의 먹을 것과 최고의 인기를 얻을 수 있던 학이 그곳을 떠나 심학산으로 도망 나왔다는 설화는 현대를 살아 가는 우리에게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한다.

누구나 보통 사람이라면 호의호식을 꿈꾸어 온다. 게다가 명예와 권력까지 갖게 된다면 더 이상의 소망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러한 소망은 인류에게 번민과 갈등을 만들게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정치나 경제를 통하여 명예와 권력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명예와 권력이 블랙홀처럼 한 곳으로 집중되어 가고 있지만 이제 사회가 바뀌어 가고 있다. 요즘 사람들은 자신의 의사를 자유롭게 표현하기를 좋아 한다. 그래서 촛불집회에 참가해서 개인의 의사를 어필한다. 또 인문학이 존중 받고 호젓한 들레길에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다.

풍요한 사회가 되면서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있다는 징조 일 것이다. 세상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꼭 궁궐에서 호의호식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자신이 왜 사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고 싶은 것이다.

심학산 들레길은 사색하기 좋은 길이다. 급경사도 없이 깨끗한 숲길을 걸을 수 있다. 또 시작하는 곳과 끝나는 곳

을 내가 정해서 몇 바퀴라도 돌 수 있는 곳이다. 생각이 많으면 해가 한강에 긴 꼬리를 내리는 시간까지 머물러 있으면 된다.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어도 여유있게 한강의 아름다운 석양을 즐기면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보고 오늘 주식 오를 것을 생각하는 것은 자신을 확대하는 것이다.

여름날 신록이 싱그러운 심학산에서 시간대별 바뀌는 그림자를 밟으면서 아름다움을 느끼는 것도 인생의 깊이를 알아 가는 한 방법일 것이다.



심학산 꽃축제 양귀비

심학산 이야기

심학산 둘레길

심학산은 자유로 변에 위치하고 1~2시간 걸리는 등산로가 설치있다. 자유로와 한강, 김포, 관산반도를 바라보며 삼림욕을 즐길 수 있고 정상에서 바라보는 서해의 낙조는 일품이다.

동쪽은 동패리, 서쪽은 서패리, 남쪽은 산남리 등 3개리가 둘러 있다.

심학산 명칭은 이 산이 홍수 때 한강물이 범람하여 내려오는 물을 막았다 하여 수막 또는 물속으로 깊숙히 들어간 메뿌리라하여 호칭하였다.

언젠가 홍수가 심하게 나서 한강물과 조수로 산이 물속 깊게 가라앉게 되자 심악산(深嶽山)으로 불렸다.

숙종 때는 궁궐에서 기르던 학 두 마리가 도망을 쳤는데 이 산에서 학을 찾았다 하여 학을 찾은산, 심학산(尋鶴山)으로 불리게 되었다.

심학산은 동에서 서로 길쭉한 모양이다. 정상은 서쪽의 중심에 솟아 있다. 동패리 교하배수지에서 정상까지는 주릉을 따라 둘레길이 잘 조성되어 있다.

어른 둘이 나란히 걸어도 좋을 만큼 길이 넓다. 작은 산치고는 제법 숲도 깊다. 등산로를 뒤덮은 활엽수림은 한낮에도 숲 그늘을 만들어준다. 그러나 주릉에 난 등산로만 오가기가 조금 어렵다. 그래서 만든 것이 둘레길이다.

심학산 둘레길은 2009년 가을에 완공됐다. 심학산을 한 바퀴 도는 이 길의 총 길이는 6.8km. 2시간이면 넉넉하다.

둘레길은 오르막과 내리막이 거의 없다. 산의 7부 능선을 따라 길이 조성됐는데, 깊은 숲이 좋다. 또 맨발로 걸어도 좋을 만큼 부드러운 흙길이 이어진다. 둘레길은 곳곳에서 주릉 등산로와 이어진다.

또 둘레길과 주릉 등산로의 높이가 50m 내외에 불과해 두 길이 이웃하면 걷는 느낌을 준다. 따라선 사람들은 주릉과 둘레길의 경계를 넘나들며 걷기를 즐긴다.

최적의 코스는 주릉을 따라 정상까지 간 뒤 둘레길을 따라 출발점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PI PHOTO STORY
파주 심학산 이야기

사진·글 이 기 상

제 작 2011.6.24

Email pajuiyagi@gmail.com

Blog www.pajuiyagi.com